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본 인도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에 대한 토론문

김지혜¹

서울과학기술대학교^{1*}

jihyekim@seoultech.ac.kr^{1*}

본 발표는 인도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면서 인도 중·고등학교에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 한국어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20)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관련 연구는 지난해 고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에서 출발하여 현재 교재 개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에서 ‘한국어’를 중·고등학교의 정식 외국어 교과목으로 채택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인도의 외국어 교과목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태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진학이나 취업 등 상당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의 필요성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한국어교육이 저변을 확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중·고등학생이라는 인도의 미래세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목적과 방향, 내용은 다른 교육과정과는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인도의 미래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안다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진학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발표자도 설명한 것처럼 인도는 다중언어주의 국가로 최소 3개의 언어(영어, 힌디어, 지역어 등)를 사용하며, 무엇보다 영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다른 ‘외국어’ 과목에 기대하는 바가 명확하고 수업 시간이나 교육 내용에서도 주나 학교마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 학습에 능숙한 인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학습할 때도 다른 국가의 학습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간 해외 중등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온 연구진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에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 혹은 ‘유연성’이라는 것은 중요도와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의 교육시스템과 진학 시험, 교육열 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한국어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준호 외(2020)의 연구에서는 인도의 교육시스템, 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당시 참고할 수 있는 학교가 3개 정도에 그쳤고, 지역에도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재 개발 연구 1기에서는 이준호 외(2020)의 인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현재 시점에 맞게 다시 검증하고, 외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관련자와의 면담 등 연구 방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가 인도 현지에서 현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생각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힌디어'를 채택하게 되었을 때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을 인도 전문가들이 했다면 어떠한 장점과 한계가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가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 변인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교육 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실제 중·고등학교에 보급이 되고 현지 교사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교육 환경이나 학습자 특성, 교사들의 역량 또는 학부모들의 기대 등을 이유로 전혀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가공의 단계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공의 단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연구진들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이다. 인도 현지에서 한국어교육을 경험한 한국인 교수진이나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번 연구와 같이 인도의 대학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육과정과 교재라면 인도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치게 될 교사들과 협업하는 것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교재를 구성하는 교수요목에서 학습 활동, 평가에 이르기까지 현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교재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하게 될 인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이나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교재 개발 연구진에서 이미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한국의 연구진들과 현지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은 연구진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외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재의 실제 사용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역할이나 형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교재의 형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 어휘나 표현, 텍스트에 담기게 될 사회의 모습과 가치관 등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정된 형태나 내용의 교재가 아닌 유연하며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에 있어 얼마만큼의 여백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그 위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정이 생겨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교재에서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많은 언어 교재에서 시작되었으며 변화하는 언어 학습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 중·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이 두 국가 간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방향에 맞는 교재 개발의 형태를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며,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학습자 중심의 선진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